

주요 자산 요약

10월 2일 오전 9시 기준(전주 대비)



가상자산 시가총액

5,690조

▲ 210 (+ 3.83%)



가상자산 총 거래량

272조

▲ 52 (+ 23.64%)



비트코인

168,417,000원

▲ 7,769,000 (+ 4.84%)



이더리움

6,177,000원

▲ 287,000 (+ 4.87%)



USDT

1,403.63

▼ 1.48 (- 0.11%)



나스닥

22,755.16

▲ 260.8 (+ 1.16%)



코스피

3,525.48

▲ 54.57 (+ 1.57%)



달러인덱스

97.74

▼ 0.09 (-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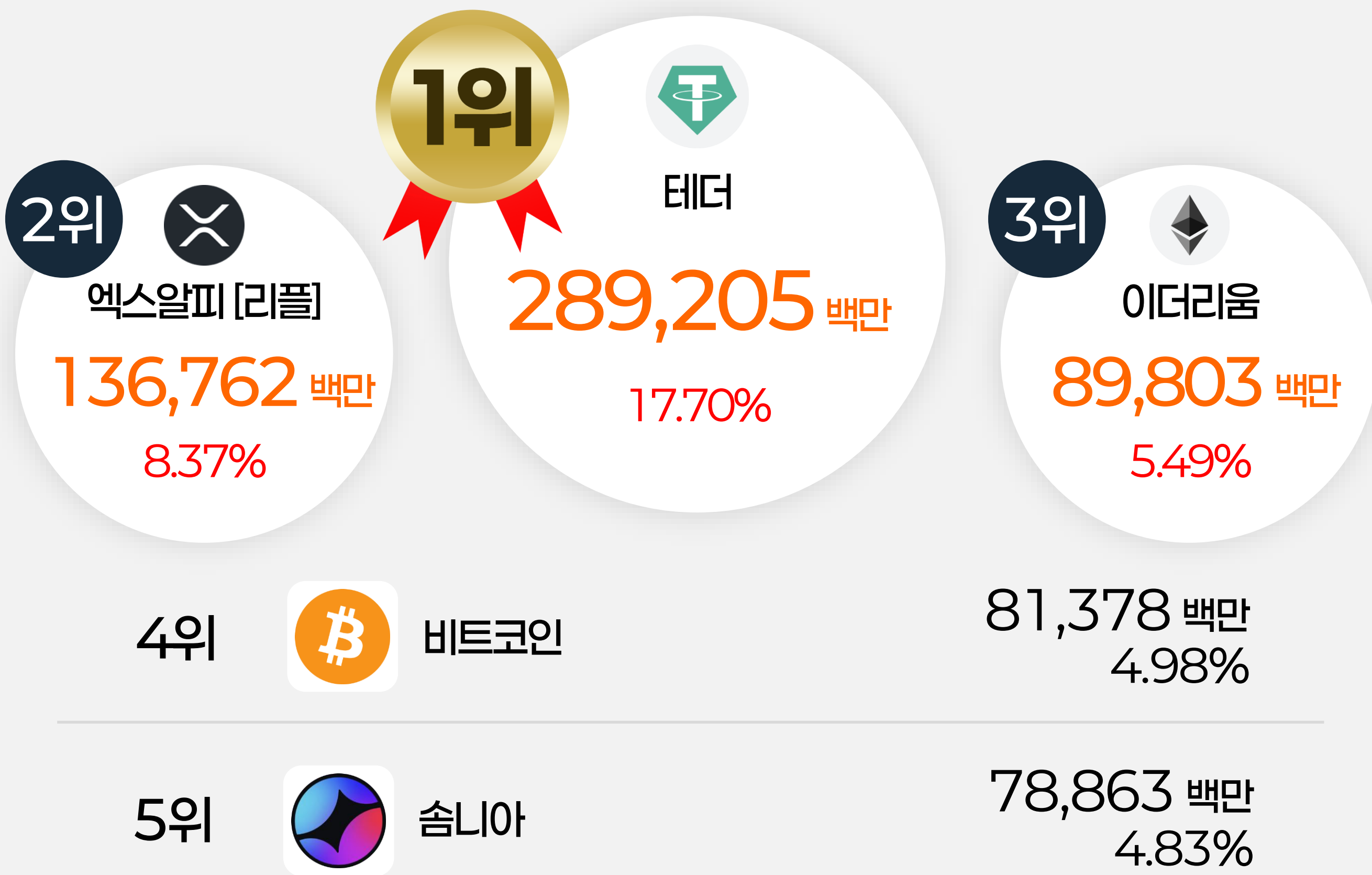
주간 급등 코인

지난주에 샀더라면?

빗썸 원화 마켓 주간 상승률 상위 5개 코인



빗썸 원화 마켓 주간 거래량 상위 5개 코인



* 주간 급등 코인은 2025.9.25 ~ 2025.10.1일 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거래량의 %는 기간 내 빗썸 총 거래량 대비 비중입니다.

주간에 가장 핫했던 기사

미국의 섀다운 사태 속에서도 굳건한 비트코인의 흐름



지난주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섀다운 사태가 10월 1일 기해 시작됐지만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지난 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섀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섀다운을 피하고자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가결 정족수 60표에 모자란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섀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시장에서 우려하던 섀다운 사태 속에서 비트코인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이야기하는 11만 7,50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시장은 기존의 사상 최고가인 12만 4,474달러를 재돌파할 수 있을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트코인은 9월 한 달간 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10월 첫 거래일 시작부터 꾸준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확대했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투자 심리의 회복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주요 레벨이었던 11만 7,500달러 돌파는 상승 모멘텀 강화의 분기점으로 간주된다.

온체인 분석업체 코인글래스(CoinGlass)는 9월 마감에 양봉으로 끝날 경우, 통상적으로 4분기에는 평균 53%에 달하는 추가 상승이 뒤따랐다고 전했다. 이 데이터가 유효할 경우,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최대 17만 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팻캐스터 콜린 톡스 크립토(Colin Talks Crypto)는 사이클의 정점이 2025년 4분기에서 2026년 1분기 사이, 특히 12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분석가 사이코델릭(Sykodelic)은 비트코인이 저점을 통과했고 이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 저점 확신을 95%로 제시했다.

금융 전문 미디어 FX스트리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10월에 평균 20.23% 상승률을 기록해 왔으며, 특히 4분기 평균 수익률은 78.88%에 달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연말로 갈수록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시도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강화하고 있다. 기관 수요 역시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소밸류(SoSoValue)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화요일 하루 동안 4억 2,996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이를 연속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ETF 자금 유입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회복세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알트코인 시장도 낙관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발란체(AVAX)와 체인링크(LINK) 등 주요 가상자산들이 연이어 강세 전환에 성공하며, 저점에서의 활발한 매수세가 확인된다. 이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리스크 선호 심리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달 중으로 다수의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예상되면서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일반 상장 기준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한다. K33 리서치는 ETF가 시장 심리를 전환시킬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적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14번의 10월 중 9번 상승했으며 평균 15.2% 상승을 보였다. 특히나 2017년에는 49%, 2021년에는 40% 상승하는 등 큰 폭의 상승을 보인 해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해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이 나타났었다. 9월 약세 전통을 깨고 맞이한 10월 다시금 업토버라는 단어에 걸맞는 상승을 보여 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1억6268만 원대, 미국 증권거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



토크 주식 띄운 SEC, 긴장하는 월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반...



코인 개미' 1000만명 돌파...100만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빗썸에 새롭게 추가된 가상자산



솜니아
(SOMI)



팔콘 파이낸스
(FF)



플라즈마
(XPL)



미라
(MIRA)



플루이드
(FLUID)



쿠디스
(CUDIS)



팝캣
(POPCAT)



비트레이어
(BTR)

빗썸인사이드



[이벤트] 창립 12주년 기념 - 첫번째, 거래...

빗썸 창립 12주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이벤트] 거래할수록 매일 커지는 상금!...

거래한 만큼 혜택이 쏟아지는 거래 대회, 제11회 빗썸 거래왕이...



[안내] 스마트한 투자를 위한 도우미, 'AI...

스마트한 투자를 위해 'AI 일일시황'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없으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 투자 여부, 종목 선택, 투자 시기 등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주)빗썸에 있으며,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